

해체주의 건축 요소를 적용한
탁자조명등 제작 연구

국민대학교 일반대학원

금속공예학과

김 봉 환

2018

머리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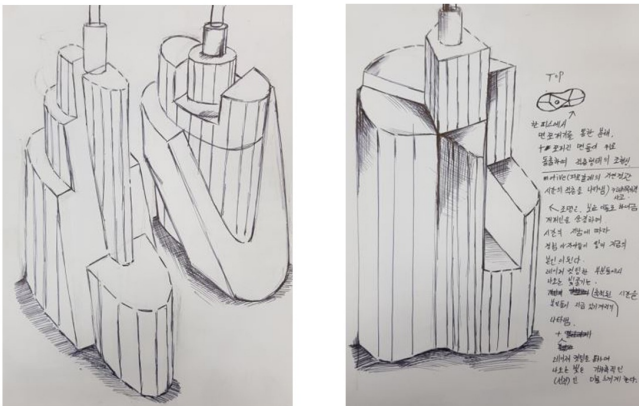
조명은 인류의 삶과 아주 밀접한 관계를 형성하며 끊임없는 진화를 해왔으며 현재도 계속 발전하고 있다. 조명은 공예가 가진 수공성과 일품성, 그리고 생활공간에 밀접한 관계를 가지며 영향을 준다. 현대의 조명은 단순하게 빛을 발산하는 역할을 뛰어 넘어 생활공간에서의 시각적 효과를 가진 소품이다. 나는 현대 건축양식 중 해체주의 건축양식의 요소인 절개, 반복, 기울기를 사용한 결합적 형상을 제작 할 것이다. 형태 연구는 하나의 조형물을 둘 이상의 형태가 분리한 상태가 되도록 만들 것이다. 이 행위는 기하학적 형태로 각 부분들을 나누고 붙여 심미성을 추구하기 위함이다. 형태를 구축하는 주된 기법은 각접기를 사용한다. 선반기계를 사용하여 보다 작업의 효율성을 높이고 오차의 범위를 줄이기 위함이다. 이 행위는 판재를 반복적으로 나눈 면을 접어서 기하학의 심미성 살리고 면의 꺾임에 의한 빛의 산란을 유도를 고려한 기법이다. 나의 연구는 오늘날 변화하는 시대에 맞추어 조명을 단지 실용적인 사물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나아가 시각적으로 심미성을 부여하여 실내 공간에서의 조형적 요소로 격 있는 분위기를 보여 주고자 한다.

몸글

해체주의 건축의 특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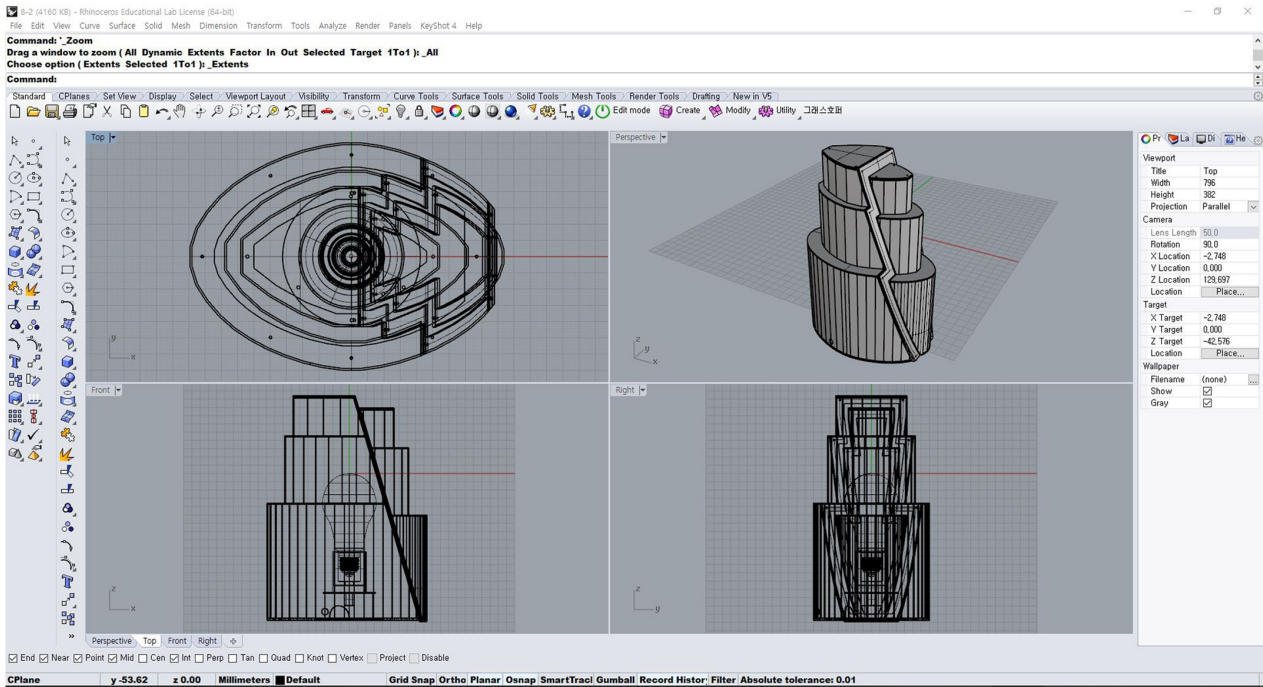
해체주의 건축의 특징은 오랜 기간 이어진 건축의 목적과 목표로부터 자유롭게 하는것에 있으며 완성된 이론과 학습된 구조의 테두리를 벗어나 다른 수단과의 소통을 통해 새로운 건축을 도모하려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해체주의 건축의 특징을 살피면 개방성을 중요시 하며 형태의 어느 부분적 요소에 중심적 의미를 부여하지 않음으로서 원리로부터 자유롭게 동시에 어떤 의미로도 해석이 가능해 지는 특징이 있다.

해체주의 건축요소를 적용한 조명등 예상 그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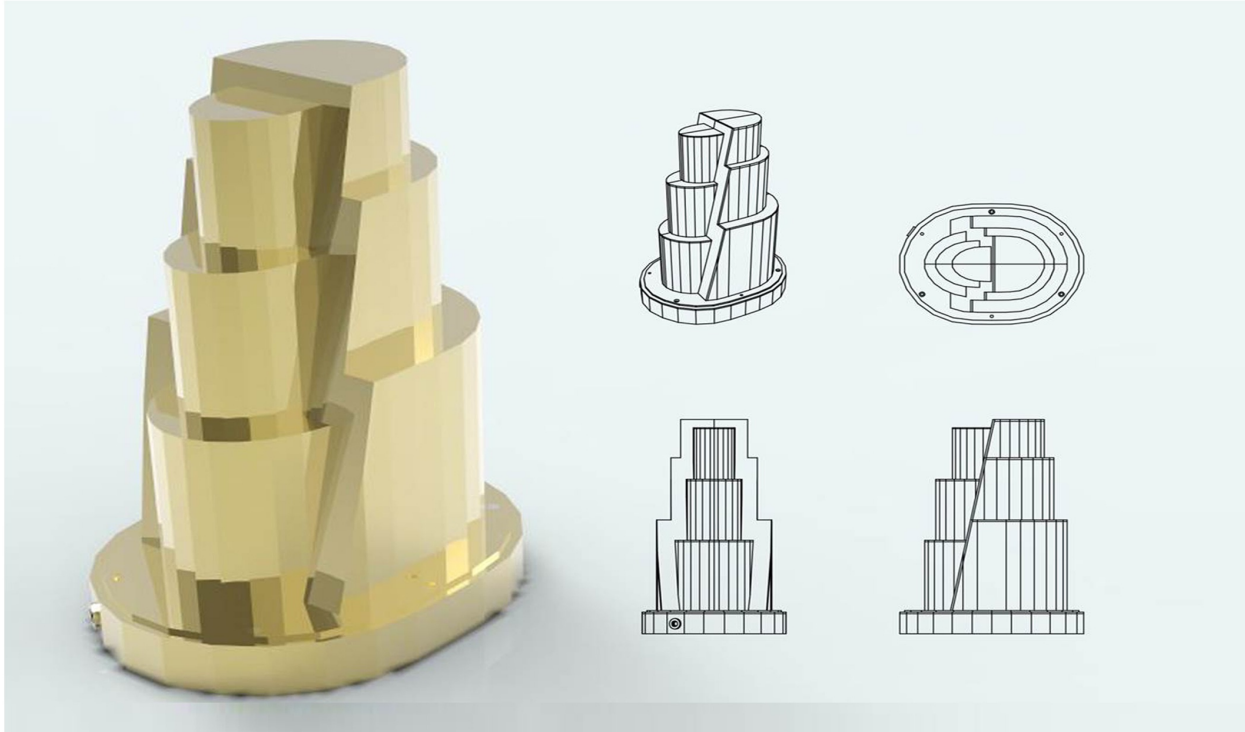
위의 그림들은 해체주의 건축양식 요소인 반복과 절개를 통한 조형성을 가지는 조명등의 상상 그림이다. 하나의 큰 덩어리를 분할하여 비례와 심미성에 맞게 재구축한 형상을 만들었다. 각 면들의 꺾임을 통해 빛의 산란을 생각하며 만들었고 분리가 편하도록 나사를 통한 결합을 유도한 그림이다.

해체주의 건축 요소를 적용한 조명등 예상도



위의 그림은 컴퓨터 응용도구 중 조형물을 구축 할 수 있는 응용도구를 사용하여 만든 조형물의 예상도이다.

컴퓨터 응용 도구인 색도구를 사용한 예상도



위의 그림은 컴퓨터 응용 도구인 색도구를 사용하여 조형물에 재질을 표현하여 제작 완성시의 모습을 미리 예상 가능 하도록 만들었다. 황동이 주는 격 있는 품격을 보여주고 싶었다. 꺾이는 부분들이 많은 형상이기에 황동으로 제작하면 외부의 빛에 노출 될때 심미성이 상승하는 효과를 보여주고 싶었다.

맺음글

나는 조명이 단순하게 실용성을 추구하는 사물로서 고착되기 보다는 실용성을 가지며 심미성을 추구하고 실내에 두었을 때 공간과 어울릴 수 있는 조형적 아름다움을 지닌 사물로 표현하고 싶은 마음에 연구를 시작했다. 사람에게 첫번째로 인지되는 것이 시각적 아름다움이라 생각하였다. 일상생활에서 시각적으로 바라볼 때 크고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는 것은 건축이라 생각 하였다. 건축양식들 중에서 시대의 변화를 담으며 심미성이 극대화 된 것이 해체주의 건축이라 생각하였다. 이러한 장점이 공예의 수공사물과 결합이 된다면 효과는 매우 뛰어날 것 이라고 판단하여 연구를 진행 하였다. 앞으로도 실용성과 심미성을 가지고 실내공간과 어우러짐을 목표로 선비로써 연구를 진행 할 것이다.

도움글

참고논문

박주형, “결합적 형상의 실내조명등 제작 연구”,

석사 학위논문, 국민대학교 일반대학원, 2015

김희중, “신 해체주의 건축의 조형 요소를 활용한 가정용 LED조명 디자인에 관한 연구”

디자인학 석사 학위논문, 서울시립대학교 디자인전문대학, 2013